Ⅱ

현장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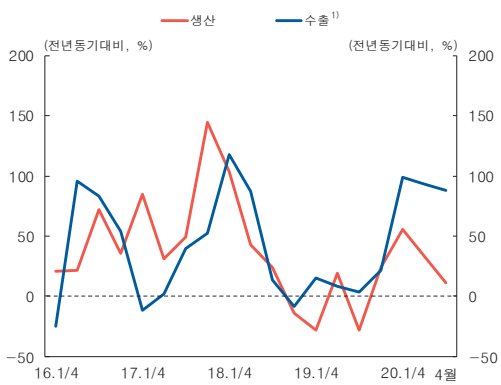
1. 인천본부	인천지역 의약품 생산 및 수출 증가세 지속	71
2. 부산본부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 수출입 물동량 축소로 감소 전환	73
3. 충북본부	충북지역 화장품 업체 매출, 코로나19로 감소 전환	75
4. 전북본부	전북 군산 폴리실리콘 산업 구조조정 및 향후 전망	77
5. 목포본부	전남지역 조선업, 수주부진 등으로 하방압력 커져	79
6. 강원본부	강원지역 관광, 코로나19 여파로 부진 지속	81
7. 강릉본부	강원 영동지역 해안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커피전문점 창업 지속	83
8. 제주본부	제주지역 관광, 골프장・호텔업 등에서 일부 부진 완화	85

인천지역 의약품 생산 및 수출 증가세 지속

인천본부 김아현 과장

최근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의약품의 생산과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지난해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내 경쟁 심화 및 위탁생산 수주 부진으로 다소 부진했던 인천지역 의약품 생산은 금년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55.8% 늘어난 데 이어 4월에도 11.1% 증가하였다(전국 1/4분기 12.9% → 4월 -0.3%). 수출은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99.2% 증가하여 전년(12.4%) 및 전국(52.5%) 실적을 크게 상회[1]하였고 4~5월(88.2%)에도 높은 성장률을 이어갔다.

인천지역 의약품 생산 및 수출 증가율



주: 1) 2020년 4~5월 중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이는 인천지역 주요 수출품인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자가면역치료제, 항암제 등 필수 의약품에 해당하여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데다 이들 제품이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연달아 출시[2]된 데 기인한다. 이에 힘입어 인천지역 주요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의 1/4분기 중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3]하였다.

국가 및 지역별로 보면, 금년 들어 유럽으로의 의약품 수출은 경쟁사 감소[4]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5] 및 신제품 출시 등으로 전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증가로 전환되었다. 또한 일본으로의 수출도 주요 업체의 매출 호조[6]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확대가 이어지며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역의 국가·지역별 의약품 수출

(%)

	비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9	'18	'19	'20.1~5월
유럽	75.0	30.8	17.9	102.2
미국	16.9	33.9	-4.5	66.8
일본	2.2	300.7	308.1	427.5
중국(홍콩 포함)	1.1	21.2	-43.1	92.9
기타	4.8	16.2	-9.0	26.5
전체	100.0	30.8	12.4	94.2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천지역 주요 바이오의약품 업체는 코로나19 치료제, 진단

1) 전국 의약품 수출에서 인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분기 중 63.2%로 전년의 51.5%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2) 셀트리온은 금년 2월 유럽에서 램시마SC(피하주사제형 자가면역질환치료제)를, 3월 미국에서 허쥬마(유방암·위암치료제)를 출시하였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4월 미국에서 온트루잔트(유방암·위암치료제)를 출시하였다.
3) 1/4분기 중 셀트리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8.2%, 55.4% 증가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액이 65.2%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234억원 적자에서 626억원 흑자로 전환되었다.
4)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원가경쟁력이 낮은 일부 대형 제약사들(화이자, 암젠, 베링거인겔하임 등)이 유럽 시장 출시계획을 잇달아 철회하고 있다.
5) 미국 최대 사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H)는 2019년 10월부터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램시마, 자가면역질환치료제)를 우선 처방의약품(preferred product)으로 등재하였다.
6) 셀트리온의 허쥬마가 3월에 일본 트라스투주맙(유방암·위암치료제 성분명) 시장점유율 40%를 달성하였다(셀트리온 헬스케어).

키트 등의 개발 및 생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분야의 중점지원 후보군 기업으로 선정[7]된 가운데 메르스 항체 치료제 개발도 국책과제로 선정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나선 다국적 제약사들과 최근 대규모 위탁생산 계약[8]을 체결하였다.

인천지역 주요 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생산준비 현황

회사명	종류	현황	내용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1]	임상 준비	- 최종 항체 후보군(38개) 확정 - 7월 중 인체 임상실험 목표 - 200억원 투입(신속진단키트 개발 포함)
삼성바이오로직스	항체 치료제[1]	임상 준비	- 미국 비어(Vir)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개발중인 후보물질 위탁생산 확정 의향서 체결 - 계약규모는 4,400억원 - '21년부터 해당물질 생산 계획

주: 1)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의 항체를 분석·평가하여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만 선별하여 치료제로 이용
자료: 각 사

한편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으로 K-바이오가 주목받으면서 지역 내에서도 바이오산업의 육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천은 지난 20여년 간 대표적인 의약품 생산도시로 성장했지만,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글로벌 대기업과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바이오벤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밸리 조성, 원·부자재 국산화[9]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기반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밸리 조성 사업은 현재 송도 4·5공구에 조성되어 있는 바이오클러스터를 11공구까지 확장[10]하여 대기업의 위탁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바이오벤처[11]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송도 11공구에 허브 임무를 수행하게 될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고, 동 단지내에 의약품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바이오공정 전문센터」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할 「바이오상생협력센터」을 설립할 계획이다.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조성 계획

사업명	사업 내용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바이오기업 250개사 유치, 6천명 일자리 창출 - 바이오 특화지구 조성(중소·중견기업 90개사 유치) - 바이오융합센터 건립(벤처·스타트업 160개사 유치)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기관 - 교육시설, 바이오공정 시스템 장비 등을 구축 - 매년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2천 5백명 양성
바이오상생협력센터	중소·벤처기업 지원 전담기구 - 바이오의약품 분석장비 구축 - 기술개발 지원, 업종 고도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자료: 인천광역시

최근 인천지역 의약품의 생산과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고 미래 성장잠재력도 큰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12]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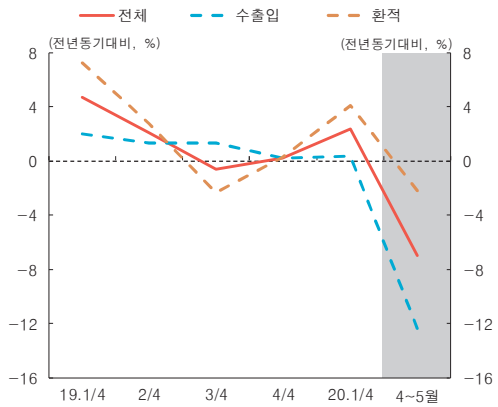
7)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분야 14개사와 백신 분야 7개사를 중점지원 후보군 기업으로 선정하였다(5.6일).
8)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월에 미국 비어(Vir)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위탁생산 계약(4,400억원)를 체결한데 이어 5월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및 미국 소재 제약사(비공개)와 각각 2,800억원, 1,8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9) 인천시는 바이오기업(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디엠바이오 등),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과 2019년 12월 「바이오산업 원·부자재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시간내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 30개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에 안내하고 국산화 품목을 매년 확대하기로 하였다.
10) 11공구에 대한 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을 완료(5.20일 고시)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 기반시설 설계 완료, 하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해 있는 신약 연구개발 관련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메티메디(메타볼리즘 항암제 개발), 루다큐어(안구질환 치료용 점안제 개발 및 특허 획득), 보로노이(항암제, 면역질환 및 퇴행성 뇌질환 표적치료제 개발) 등이 있다.
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입주기업 및 관계기관 대표자 등은 「경제자유구역 K-바이오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간담회(5.19일)를 열어 바이오클러스터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밸류체인(가치사슬) 완성형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① 연구~생산 밸류체인 강화, ② K-바이오 육성을 위한 혁신 인프라 확충, ③ 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3대 전략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 수출입 물동량 축소로 감소 전환

부산본부 정민수 과장, 이지영 조사역

1/4분기 중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글로벌 해상 물동량 위축[13]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이 몰리며 증가하였으나 4월 이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의 축소로 감소하였다(전년동기대비, 1/4분기 2.3% → 4~5월 –7.0%).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실적 증가율



자료: 해양수산부

4~5월 중 수출입 물동량의 경우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모습이다. 1/4분기에는 전년동기 수준을 보였으나 4월 이후 수출입 축소가 본격화되면서[14] 컨테이너 물동량도 감소로 전환되었다(1/4분기 0.4% → 4~5월 –12.4%).

반면 환적물량은 감소세가 크지 않았다. 1/4분기에는 선사들이 중국내 통관 및 내륙운송 차질로 제 기능을 못한 중국항만 대신 부산항으로 몰리며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의 항만기능이 점차 회복되면서 4~5월에는 소폭 감소로 전환되었다(1/4분기 4.1% → 4~5월 –2.2%).

부산항 및 전국 컨테이너 처리실적[1)]

(만TE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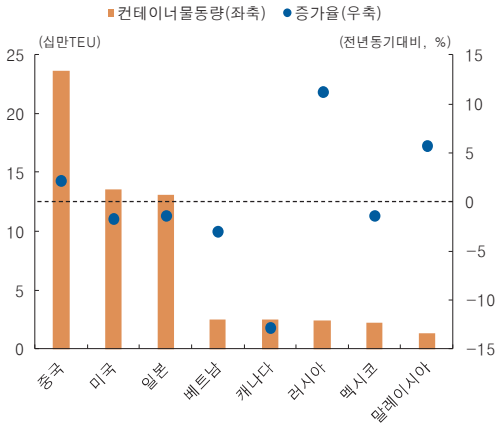
	2019				2020	
	1/4	2/4	3/4	4/4	1/4	4~5월
부산항	536	563	543	557	548	352
	(4.7)	(2.0)	(-0.6)	(0.2)	(2.3)	(-7.0)
(수출입)	255	265	256	259	255	156
	(2.0)	(1.3)	(1.3)	(0.2)	(0.4)	(-12.4)
(환적)	281	298	287	298	293	195
	(7.2)	(2.7)	(-2.3)	(0.3)	(4.1)	(-2.2)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1~5월 중 부산항 물동량의 국가별[15] 동향을 살펴보면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미국, 일본, 베트남은 소폭 감소하였다. 그 외 캐나다가 큰 폭 감소한 반면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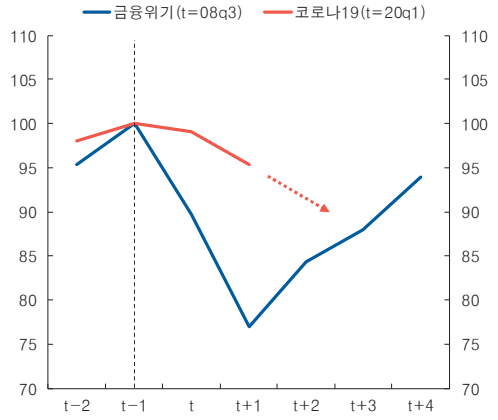
13) 중국 주요 항만의 1/4분기 중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8.9%, LA항(미국)은 -18.5%, 로테르담항(네덜란드)은 –4.7%를 기록하였다. 한편 금년 중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19년 4/4분기 –11.8%, 2020년 1/4분기 –1.8%, 4~5월 –24.6%이다.
15) 1~5월 중 국가별 물동량 비중은 중국 26.2%, 미국 15.0%, 일본 14.5%, 베트남 2.8% 등의 순이다.

부산항 국가별 컨테이너 처리실적 (1~5월)



자료: 해양수산부

경제위기 전후 부산항 물동량 변화[1)]



주: 1) 위기 직전분기 물동량을 100으로 전환. 한편 코로나19의 경우 t+1기는 2020년 4-5월 자료
자료: 해양수산부

컨테이너 운임은 해상운송 수요 급감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의 서비스공급이 더 크게 줄면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상승[16)]하였다. 선사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운임 급락을 우려하여 계선량(선박을 운용하지 않고 항구에 정박시킴)을 대폭 늘렸으며[17)], 용선(빌린 선박)의 경우도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해운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은 운임 상승, 유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매출 감소 및 선박 미운용에 따른 고정비용 부담, 공컨테이너 비중 상승[18)] 등으로 대부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해상 물동량 축소가 당분간 반전되기 어려운 데다, 미·중간 갈등 심화 가능성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9.1/4분기 –19.8%)와 같은 큰 폭의 물동량 감소를 겪을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항은 주요 간선항로(중심항로) 상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 큰 데다 2010년대부터 컨테이너 처리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부산신항 위주로 이뤄짐에 따라 선사들의 선호가 매우 높은 편이다. 아울러 동남아 노선 확대가 물량 축소를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 대표 해운사인 HMM(구 현대상선)의 선대 확충 및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19)]에 따른 선박운용 효율성 개선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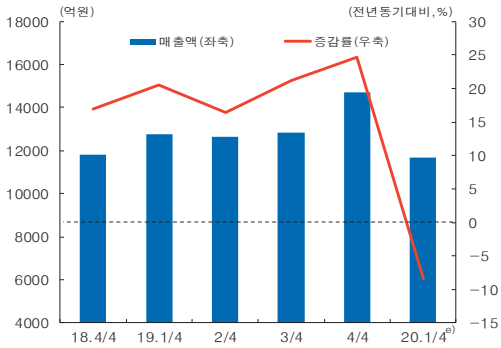
16) 상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기간 중 평균): 2018년 831.8 → 2019년 810.9 → 2020년 1~5월 897.7
17) 4월 말 기준 세계 컨테이너선박 계선량은 240만 TEU로 전체 선대의 약 10%에 달했는데, 이는 평년수준(4%)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Alphaliner, 한국해양진흥공사).
18)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실적 중 화물을 싣지 않은 공컨테이너 비중은 5월 18.5%로 지난해 12월(17.1%)보다 1.4%p 상승하였다.
19) HMM(구 현대상선)은 2017년 4월부터 2M(Maersk + MSC)과 약한 수준의 제휴관계를 맺어 오다가 금년 4월부터는 THE Alliance(Yang Ming, Hapag-Lloyd, ONE 등)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를 통해 회원선사간 선박 및 운항노선 공유, 터미널 공동사용, 연료 및 선용품 공동구매 등이 가능해져 운송서비스 범위 확대, 선박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지역 화장품 업체 매출, 코로나19로 감소 전환

충북본부 심연정 조사역

충북지역 화장품 업체의 매출은 고급 화장품에 대한 중국의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그간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화장품 시장 여건 악화로 1/4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하는 등 화장품 업계가 업황 부진에 직면한 상황이다.

충북 주요 화장품 생산업체 매출액[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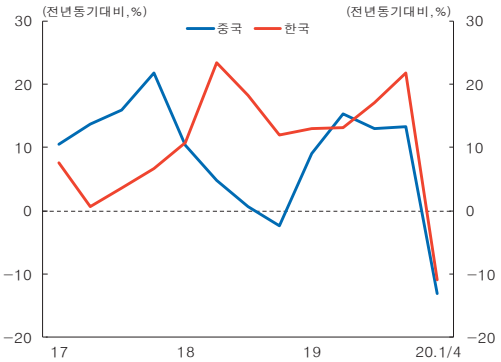
주: 1) ㈜LG생활건강, 잇츠한불, 코스메카코리아 기준
2) 이전 분기와 일관된 비교 및 충북지역 매출액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18.3/4분기부터 반영된 코스메카코리아의 미국 법인(잉글우드랩) 매출액은 제외
자료: ㈜LG생활건강, 잇츠한불, 코스메카코리아

다만 충북지역 최대 업체인 LG생활건강[20)]의 경우, 고급 화장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21)]를 바탕으로 여타 업체에 비해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2)]

국내 화장품 시장은 소비심리 및 영업 위축 등으로 소매판매액이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였다. 특히 면세점 매출은 같은 기간 중 중국인 입국자 수가 55% 줄어듦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7%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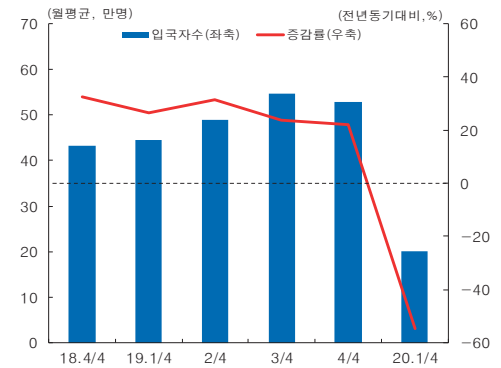
해외 화장품 시장도 수요 위축 및 오프라인 매장 휴업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의 경우 화장품 소매판매액이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였다.

국내 및 중국 화장품 소매판매액 증감률



자료: 통계청,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인 입국자 수



자료: 한국관광공사

20) LG생활건강은 도내 화장품 생산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
21) LG생활건강의 초고가 라인인 '로시크 숨마'와 '더 퍼스트'의 1/4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3%, 52% 증가하였다.
22) 전국 화장품 소매판매액이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반면,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부문 매출액은 같은 기간 중 6% 감소에 그쳤다(중국 현지 및 면세점 매출은 각각 6%, 16% 감소).

충북지역 화장품 업체들의 어려움은 2/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국내외 사회·경제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화장품 수요 회복[23] 움직임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중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급 화장품을 중심으로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24]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경쟁 심화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하락[25]하고 있는 점은 충북지역 화장품 업체의 매출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충북지역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해 국내 화장품 최대 수입국인 중국[26]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거래 확대[27], 왕홍경제[28]의 빠른 성장 등에 주목하여 새로운 판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케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9]

동시에,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여타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 및 신규 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산 화장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러시아[30]를 비롯하여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31], K-컬쳐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대한 K-뷰티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 및 비중(2019년 기준)

(백만달러, %)

	수출액	증감률[1)]	비중
중국	3,038	14.3	46.8
홍콩	919	-30.1	14.2
미국	525	-2.4	8.1
일본	402	32.7	6.2
베트남	223	32.3	3.4
러시아	211	33.5	3.2
기타	1,169	4.0	18.1
합계	6,486	3.6	100.0

주: 1) 전년대비
자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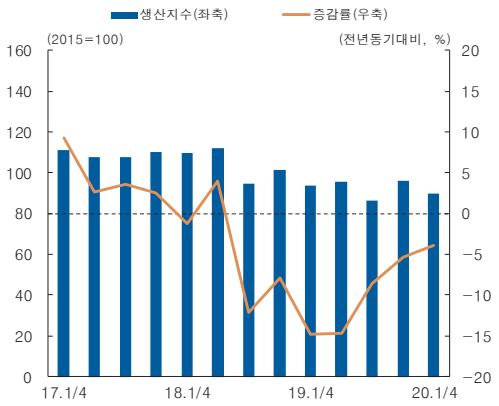
23) 4월 중 중국의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6.7% 증가(1~2월 –14.1% → 3월 –11.1%)하였다. 노동절 연휴 동안 중국 내 관광객은 1억 1,400만명(전년 1억 9,500만명)에 달하였고 '5·5 쇼핑 페스티벌' 매출은 100억위안을 기록하였다.
24) 최근 중국 지린성 지역에서 5월 7일 이후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린성 수란시, 지린시 펑만구를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25) 우리나라는 중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2016년부터 3년간 1위를 유지했으나 2019년에는 일본, 프랑스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국제무역센터).
26) 우리나라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2019년 30.4억달러로 전체 화장품 수출액(64.9억달러)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7) 중국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2011년 0.8조위안에서 2018년 9.0조위안으로 10배 넘게 증가하였다(천젠산업연구원).
28) SNS에서 큰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가진 사람(왕홍)들이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 쇼트비디오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제품 홍보 및 판매를 하는 것으로 중국 내 패션·뷰티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다.
29) LG생활건강은 2019년 광군제 때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에서 왕홍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주요 제품을 소개하는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1월에는 왕홍 4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고급 화장품 라인인 '숨'의 대표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30)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화장품 수출액은 2017년 1억달러에서 2018년 1.6억달러, 2019년 2.1억달러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31) 미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7년 861억달러로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1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Euromonitor, KOTRA).

전북 군산 폴리실리콘[32] 산업 구조조정 및 향후 전망

전북본부 김종원 과장

전북지역 화학산업은 도내 주력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33]하고 있으나, 2018년 하반기 이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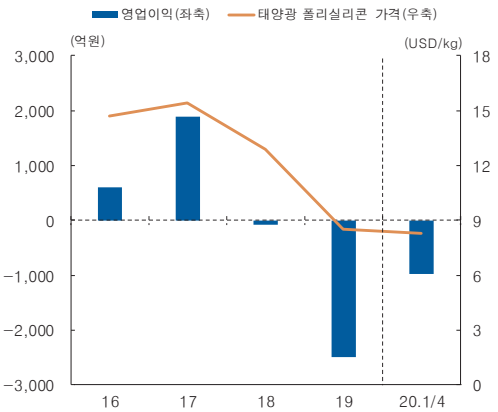
전북지역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지수[1]



주: 1) 원지수 기준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특히 올해 2월에는 전북지역 화학산업에서 큰 비중[34]을 차지하고 있던 ㈜OCI 군산공장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이 중단[35]되었다. 이는 2018년 이후 중국업체들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36]때문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세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기초화학물질 부문[37]에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된 결과이다.

㈜OCI 기초 화학물질 부문 영업이익 및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1]



주: 1) 주간 폴리실리콘 평균 현물가격의 산술평균
자료: OCI 사업보고서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 중단에 따라 ㈜OCI 군산공장은 3월부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 결과 4월 말까지 군산 폴리실리콘 공장 근로자 600여명이 희망퇴직[38]하였는데, 이는 전북지역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수의 7.1%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와 같은 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은 수년간 연이

32) 폴리실리콘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실리콘 결정체로 이루어진 물질로 태양광 전지의 핵심 소재이며, 고순도 제품은 반도체 웨이퍼의 생산에 사용된다.
33) 2018년 출하액(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료를 한국은행 국민계정 경제활동분류 체계로 재분류) 기준 전북지역 산업별 비중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2%, 음식료품 20.8%, 운송장비 19.8%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4) ㈜OCI 군산공장의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연간 약 52,000톤이었으며, 2018년 기준 연간 매출액은 약 6,500억원으로 전북지역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출하액 대비 약 43.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부문 출하액 대비 약 9% 수준의 규모이다.
35) ㈜OCI 군산공장은 2월 20일부터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같은 날 ㈜한화솔루션도 태양광 폴리실리콘(전남 여수 공장)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은 모두 중단되었다.
36) 2018년 이후 중국업체들이 자국 내 수요확대, 값싼 전기료 및 보조금 등 정부지원을 배경으로 설비를 크게 증설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가 지연되면서 수요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7) ㈜OCI는 기초 화학물질 부문에서 폴리실리콘, 과산화수소, 흄드실리카 등 무기화학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폴리실리콘 및 동 부문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18%, 47%이다.
38) ㈜OCI 전체 인력의 약 30%, 군산공장 폴리실리콘 부문 근로자의 약 7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은 악재[39][40]를 겪은 군산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3월에 군산 지역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해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41]하였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주요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경영안정 지원	· 협력업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만기연장, 세금납부 유예 등
	고용안정 지원	· 조선, 자동차 최직인력 재취업 지원, 일자리 사업 지원 등
	대체산업 육성	· 선박기자재, 상용차 등 분야의 R&D 지원, 재생에너지 등 대체산업 육성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구축 지원
고용위기지역	고용유지 지원	·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지원 수준 확대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 사업주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지역 내 사업 이전·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지역 거주자 고용 시 임금 일부 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한편 ㈜OCI는 사업구조를 반도체용 고순도 폴리실리콘 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공장 일부[42]의 설비를 보완하여 5월 초부터 반도체용 고순도 폴리실리콘[43] 시범 생산(start-up)에 들어갔다. 추후 생산전환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 현재의 생산시설로 월 35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까지 생산시설을 추가하면 목표로 한 연 5,000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OCI 군산공장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전북지역 화학산업 부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반도체용 고순도 제품의 안정적 생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9) 2017년 7월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되었으며, 2018년 5월에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었다.

40) 군산은 실업률(2016년 하반기 1.6% → 2019년 하반기 2.2%), 광업·제조업 취업자수(동 기간 중 3만명 →2.3만명), 주택가격매매지수(동 기간 중 –8.5% 하락) 및 소규모상가 공실률(2016년 4/4분기 3.5% → 2019년 4/4분기 2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악화되었다.

41) 군산은 기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2018.4.5일 ~ 2020.4.4일) 및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2018.4.5일 ~ 2019.4.4일 기간으로 지정 후 1년 연장)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올해 3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년 연장, 고용위기지역은 2020년 말까지로 재연장 되었다.

42) 기존 폴리실리콘 1, 2, 3공장 중 1공장의 설비를 반도체용 고순도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였으며, 가동 중단 중인 2, 3공장의 활용계획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43)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순도 11N(99.999999999%) 급의 폴리실리콘을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광 폴리실리콘(순도 6N, 99.9999%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며 글로벌 시장여건 및 수익성이 양호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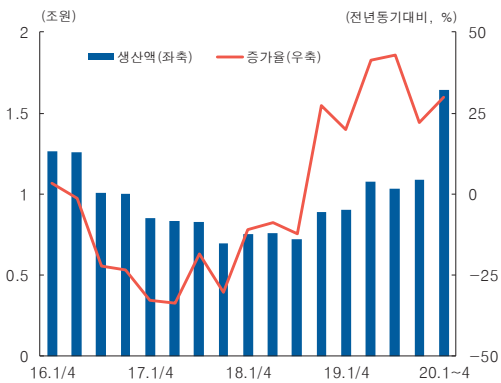
전남지역 조선업, 수주부진 등으로 하방압력 커져

목포본부 박지섭 과장

전남지역 조선업 생산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수출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용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4월 중 전남지역 주요 조선업체 생산액(1.6조원)은 전년동기(1.3조원) 대비 29.9% 증가하였다. 이는 2017~18년 중 신규수주 호조[44]로 작업물량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전남지역 주요 조선업체 생산액



자료: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반면 1~4월 중 전남지역 선박 수출액(6.4억달러)은 선박인도 지연으로 전년동기(11.4억달러) 대비 43.7% 줄어들면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전남지역 선박[1]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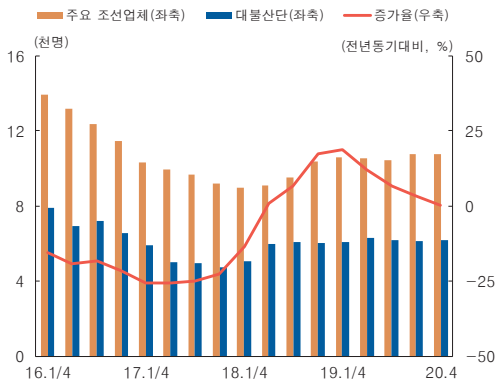
(억달러, %)

	19.1/4	2/4	3/4	4/4	20.1/4	4~5
수출액	771.2	701.6	594.5	195.2	639.4	265.3
(증가율)[2]	(-5.9)	(98.5)	(77.0)	(-81.8)	(-17.0)	(-45.1)

주: 1) MTI Code 746(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편 4월 말 현재 지역 주요 조선업체와 대불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17.0천명으로 전년동기(16.9천명) 대비 0.3%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전남지역 주요 조선업체 및 대불산단 고용인원[1]



주: 1) 기말 기준
자료: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대불국가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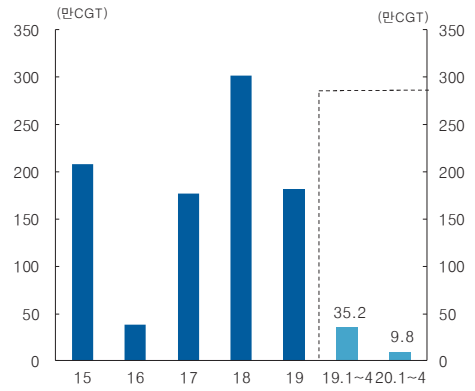
향후 전남지역 조선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주부진, 선박인도 지연 등으로 생산, 수출 등에서 하방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운업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1~4월 중 전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동기대비 63.3% 감소하였고, 동기간 지역 조선업체들의 신규수주(9.8만CGT)도 전년동기(35.2만CGT)의

44) 2017~18년 중 전남지역 주요 조선업체들의 신규수주 물량은 426.1만CGT로 2015~16년(246.1만CGT) 대비 73.1% 증가하였다.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선주, 조선소, 브로커, 금융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의 논의와 협상을 거쳐 체결되는 선박계약의 특성상 전세계적인 이동제한으로 신규 발주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조선업체들은 금년 예정된 작업물량 일부를 내년으로 전환하는 등 생산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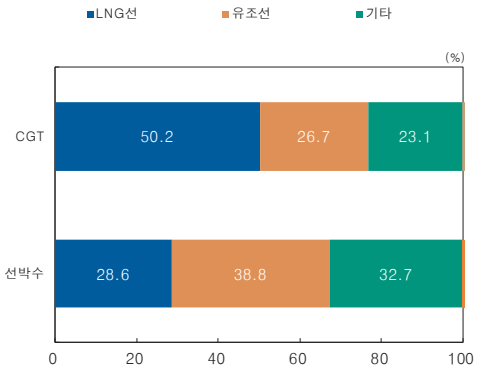
전남지역 주요 조선업체 신규 수주물량



자료: Clarksons

수출의 경우 노후선박 소유주들이 저유가로 선박 연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남지역 주요 조선업체들의 주력인 LNG선 등 친환경 고효율 선박의 인도 지연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선주 측 감독관과 엔지니어가 국내에 입국하여 완성된 선박을 검수해야 선박 인도가 가능하고 인도시점에 수출로 계상되는데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선박 인도가 지연되는 것도 수출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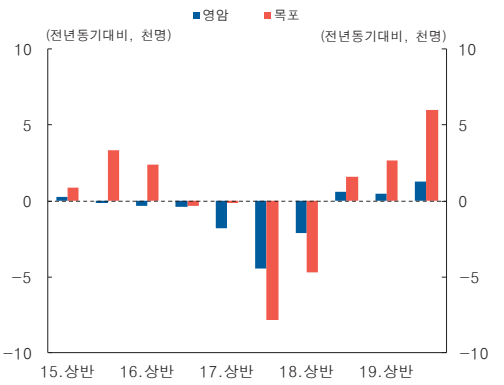
전남지역 주요 조선업체 수주 선종 비중[1)]



주: 1) 2018~19년 기준
자료: Clarksons

이처럼 전남 조선업 업황의 하방압력이 커짐에 따라 조선업체들과 기자재업체들이 밀집해 있고 관련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영암과 목포[45)]의 고용사정도 2018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암 및 목포지역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45) 영암·목포는 조선업 관련 종사자 감소 등으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2019년 4월, 2020년 5월 두 차례 연장되었다.

강원지역 관광, 코로나19 여파로 부진 지속

강원본부 이규환 과장

강원지역 관광 경기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진정세[46]에도 불구하고 감염 우려로 인해 여행 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년 1/4분기 중 큰 폭 감소하였다.

강원지역 관광 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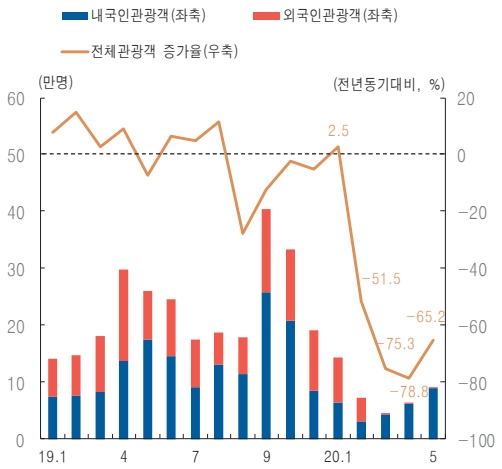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산업	2019				2020
	1/4	2/4	3/4	4/4	1/4p
예술·스포츠·여가	-4.2	1.2	5.1	7.3	-26.0
운수·창고	0.5	0.5	2.4	2.3	-10.8
숙박음식점	-6.9	-1.5	-3.5	-2.2	-18.8
도소매	-1.2	-1.8	-1.6	-0.4	-3.6

자료: 통계청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도 큰 폭 감소하였다. 강원도 대표 관광지인 남이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이 모두 크게 줄어들면서 4~5월 중 전체 방문객수가 전년동기대비 72.5% 감소하였다. 또한 정선, 태백, 영월 등 폐광지역도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47]의 영향 등으로 방문객이 큰 폭 감소하였다.

강원도 춘천 남이섬 방문객수



자료: 남이섬 관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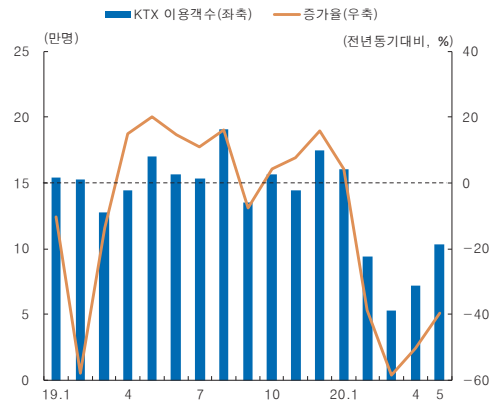
복합리조트 방문객수도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5월 연휴기간 중 '호캉스'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전년 수준을 회복[48]하였으나, 이태원발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위험이 재부각되면서 4~5월 중 평균 예약률은 작년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KTX 강릉선 이용객수는 동해연장선 개통[49] 등에도 불구하고 여행 심리 위축, 밀폐공간 기피 등의 영향으로 2월 이후 가파른 감소세를 지속[50]하였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량은 코로나19

46) 정부는 4월 19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완화하였으며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다.
47) 강원랜드 카지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3일부터 일반영업장 운영을 임시 중단하였다.
48) 5월 황금연휴 기간 중(4.30일~5.5일) 평창 용평, 평창 알펜시아, 양양·삼척 쏠비치, 속초 한화, 속초 롯데 등 도내 주요 리조트의 예약률은 90% 이상을 기록하였다.
49) KTX 강릉선이 안인역 부근에서 분리되어 동해역까지 연장 개통(3.2일)됨에 따라 청량리~동해 구간 소요시간이 개통전 약 5시간에서 개통 후 약 1시간 50분으로 단축되었다.
50) KTX 강릉선 이용객수는 2~3월 중 전년동기대비 47.6% 감소한 데 이어 4~5월 중에도 44.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염 우려가 부각된 2~3월 중 급감하였으나 연휴기간 여행수요 집중, 자차 이동 선호 등의 영향으로 4월 이후 전년 수준을 회복[51]하였다.

강릉선 KTX 이용객수[1] 및 증가율



주: 1) 평창, 진부, 강릉, 정동진, 묵호, 동해 하차 인원수
자료: 한국철도공사

도내 공항 이용 여객도 작년보다 큰 폭 감소하였다. 4월 중 양양공항 및 원주공항 여객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0.3%, 98.7%[52] 감소하였다. 도내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의 경우 작년 11월 출범 이후 양양공항 활성화[53]로 지역사회의 기대를 모았으나, 여행심리 위축에 따른 탑승률 급락으로 모든 국제선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전직원 대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54]을 겪고 있다.

강원도 양양 및 원주공항 여객수 및 증가율

(명, %)

	2019				2020	
	1/4	2/4	3/4	4/4	1/4	4월
양양공항	5,242	7,492	6,951	34,598	44,145	4,472
	(-60.7)	(-17.7)	(5.2)	(301.2)	(742.1)	(-40.3)
원주공항	22,425	30,818	30,850	27,392	10,707	408
	(7.4)	(23.0)	(50.4)	(42.0)	(-52.3)	(-98.7)

주: 1)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공항공사

한편 5월 연휴기간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세에 따른 안도감 등으로 숙박시설 예약률이 상승[55]하고 교통량이 증가[56]하는 등 강원지역 방문객수가 지난해 연휴기간[57]에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 억눌린 여행 수요, 국내여행의 해외여행 대체 효과[58], 청정 강원 이미지 부각 등을 감안하면 도내 관광업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이 하반기까지 장기화될 경우 금년 중 도내 관광업황 부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51)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은 2~3월 중 전년동기대비 12.9% 감소하였으나, 4~5월 중에는 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2) 대한항공은 원주공항의 유일한 운항노선인 원주↔제주 노선의 운항을 2월 28일부터 4월 25일까지 임시 중단하였다.
53) 플라이강원 국제선 취항 이후 1~2월 중 양양공항 이용객수는 40,027명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728% 증가하였다.
54) 정부는 2월 중 3,000억원 규모의 저비용항공사(LCC) 긴급경영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등 5개 LCC에 긴급 자금을 지원했으나, 신생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지원 요건(3년치 운항실적 제출)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원안에서 제외되었다.
55) 5월 연휴기간 중 속초 및 강릉 지역 숙박 시설 예약률은 97% 수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6) 연휴기간 중(4.30일~5.5일) 강원지역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증가하였다(한국도로공사).
57) 2019년 5월 연휴(5.1일~5.5일)는 평일이 이틀 포함되어 있으며, 2020년 5월 연휴(4.30일~5.5일)는 평일이 하루 포함되어 있다(근로자의 날은 평일에서 제외).
58)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고 국내 신혼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릉 세인트존스호텔, 강릉 씨마크호텔, 속초 롯데 리조트 등 동해안 주요 호텔 및 리조트는 신혼부부를 위한 허니문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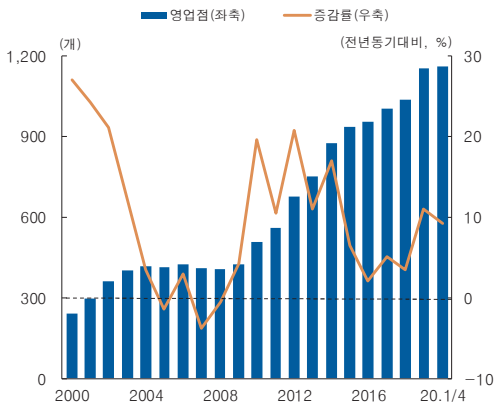
강원 영동지역 해안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커피전문점 창업 지속

강릉본부 박정현 과장, 이은국 조사역

강원 영동지역의 커피전문점[59]은 2000년대 초반 강릉에 유명 카페[60]의 본점이 자리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카페는 기존의 커피전문점과는 커피 원두, 로스팅 등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며 커피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강릉이 커피도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10년대에는 강릉·속초 등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커피전문점 클러스터들[61]이 지역 대표 관광지가 되면서 커피전문점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강원 영동지역 커피전문점 수 현황[1]



주: 1) 해당기간 말일에 영업 중인 점포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개방」

또한 평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강릉선 KTX,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이 개통되어 강원 영동지역에 대한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커피축제[62] 개최 등 지자체의 홍보노력이 지속되면서 영동지역의 커피전문점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2020년 1/4분기에도 영동지역 커피전문점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음식점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2%(전년동기대비) 늘어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1/4분기를 기준으로 2016년 이후 최고치이다. 신규 영업점도 46개로 예년 수준(직전 3개년도 평균)을 상회하였다.

1/4분기 중 강원 영동지역 신규 커피전문점 현황[1]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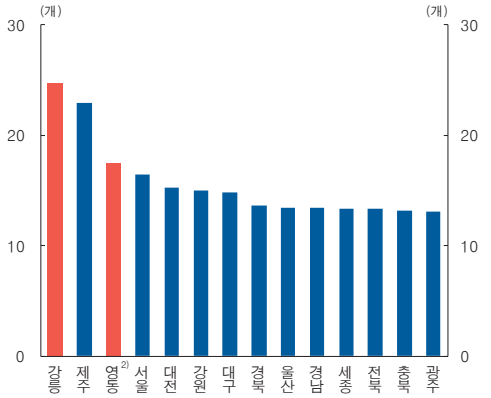
	17.1/4	18.1/4	19.1/4	20.1/4	직전 3개년 1/4분기 평균
점포수	43	33	56	46	44

주: 1) 해당기간에 개업한 점포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개방」

영동지역 커피전문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 2020년 4월 말 기준 1,166개점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의 커피전문점 수에서 강원 영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인구 만명당 커피전문점 수는 약 18개로 전국 평균수준(14개)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강릉(25개)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59) 행정안전부「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개방」데이터에 등록된 일반 및 휴게음식점 중 카페·커피숍으로 업태 구분된 업체를 커피전문점으로 간주하였다.
60) 「보헤미안」, 「테라로사」, 「커피커퍼」 등이 있다.
61) 강릉 안목커피거리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강릉 연곡·사천지구, 속초 카페거리, 삼척해변 카페거리, 동해 묵호·어달해변 등에서 커피전문점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62) 강릉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강릉일원에서 커피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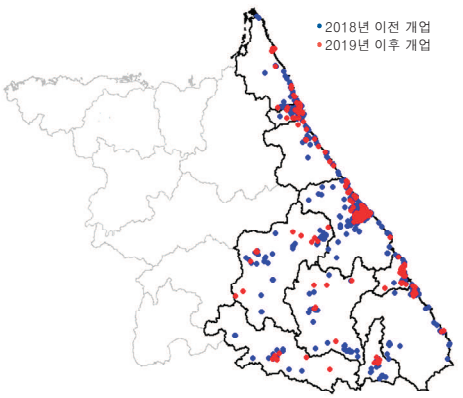
지역별 인구 만명당 커피전문점 수[1]



주: 1) 2020년 4월 말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 기준
2) 강릉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개방」, 통계청

한편 강원 영동지역의 커피전문점은 대부분 동해안에 인접한 관광도시인 강릉(45%, 강원 영동지역 커피전문점에서 차지하는 비중), 속초(10%), 동해(10%), 삼척(10%) 등에 입지하고 있다.

강원 영동지역 커피전문점의 지리적 분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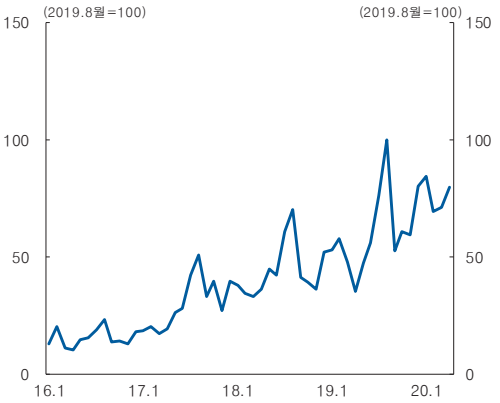


주: 1) 2020년 4월 말 현재 영업 중인 점포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시스템 개방」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해변, 호수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2019년 이후 더욱 강화되어 해당 기간에 개업한 커피전문점은 대부분 해안가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동지역 커피전문점 수요에서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강원 영동지역의 커피전문점 산업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가능성, 커피전문점 과밀집화로 인한 경쟁심화 등의 하방리스크가 잠재하고 있지만,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 교통여건 개선[63]에 따른 관광객 증가,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서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영동지역 커피전문점 관련 단어 조회수[1]



주: 1) 네이버에서 강원 영동지역의 커피전문점 관련 검색어가 검색된 횟수로 기간 중 가장 횟수가 높은 2019년 8월을 100으로 지수화 함
자료: 네이버(N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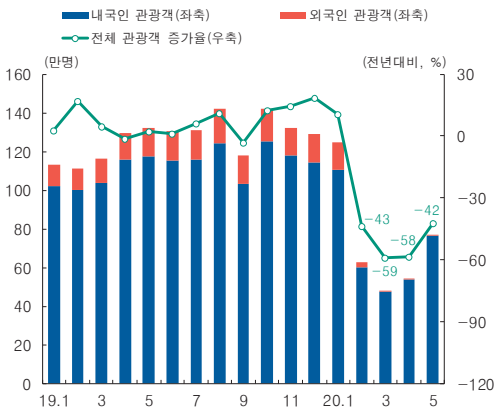
63) 동해선 KTX 개통(2020.3.2일)으로 수도권에서 강원 영동지역 남부지방(동해·삼척 등)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해당지역의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2026년), 동해북부선(강릉-제진) 등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다.

제주지역 관광, 골프장·호텔업 등에서 일부 부진 완화

제주본부 이소정 조사역

지난 2월 이후 제주지역 관광객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외국인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으로 내·외국인 모두 전년동기대비 큰 폭 감소하였다. 특히 2~4월 중 내국인 단체관광객이 전년동기대비 97.1%, 외국인 관광객이 91.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국인 개별관광객은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폭(46.1%)을 보였다.

월별 제주지역 방문 관광객수



주: 1) 2020년 5월은 잠정치
자료: 제주관광협회

내·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관광 관련 업종의 부진이 이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내국인 단체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이 주고객인 여행업과 운수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체는 1~4월 중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1,123개 중 31개가 폐업하였다. 운수업체도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이 줄면서 5월 중 전세버스 가동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점업도 업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은 매출감소[64] 등으로 1~4월 중 폐업한 곳이 271개로 전년동기대비 70.4% 증가하였으며, 관광식당업체도 작년 말 158개에서 올해 4월 말 147개로 7.0% 감소하였다. 또한 제주국제공항 내 일부 식음료 매장도 영업을 중단할 예정[65]이다

소매업은 면세점 및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출이 급감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제주 시내에 소재한 대형면세점[66] 2곳은 2~4월 중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90% 감소하여 6월 1일부터 휴점에 들어갔다. 대형마트 매출도 3월 중 전년동기대비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월 중 도내 관광객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황금연휴(4월 30일 ~ 5월 5일)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 등 국내 여행지로 대체되면서 극심한 부진에서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여행 재개시 방문지역으로 제주가 가장 선호(43.3%)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4) 2~5월 중 신한, 하나카드의 도내 일반음식점업 가맹점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동기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5) 제주국제공항 내 푸드코트 1개, 전문식당 3개, 음료 브랜드 1개 매장을 운영하는 신세계푸드는 7월 1일부터 사업권을 반납하고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66) 제주지역 시내 대형면세점은 롯데, 신라가 각각 1곳씩 운영 중이다.

국내여행 재개시 첫 희망 방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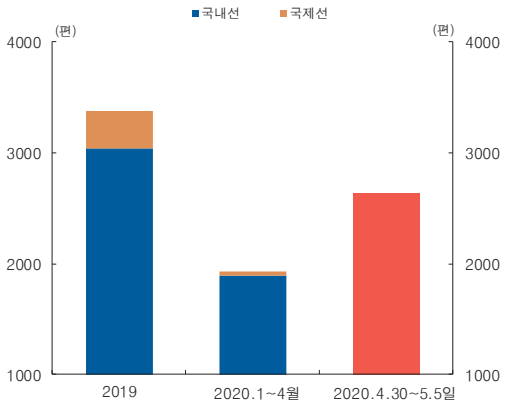
(명, %)

	제주	강원	경상	부산	전라	경기	충청
인원	6,772	3,664	2,196	1,632	1,075	200	108
<비중>	<43.3>	<23.4>	<14.0>	<10.4>	<6.9>	<1.3>	<0.7>

주: 1) 5월 7~17일(11일간) 19,529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한국관광공사

실제 황금연휴기간 중 일평균 관광객수는 26,498명으로 올해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3월 대비(15,393명) 72.1% 증가하였다. 동기간 동안 국내선 항공편이 전년 수준으로 증편되었으며, 숙박 및 렌터카 예약률도 상승하였다. 연휴 이후(5.6일~31일)에도 일평균 관광객수는 25,162명 수준을 유지하며 3월에 비해 63.5% 증가하였다.

제주공항 주평균 항공편수[1) 2)]



주: 1) 제주공항 출도착 여객기 기준
2) 2020년 4월 30일-5월 5일은 국내선, 국제선 합산 기준
자료: 한국공항공사

골프장업, 숙박업 등 일부 관광 관련 업종도 완만하게나마 회복 조짐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도외 및 외국인 골프장 내장객 수가 3월 중 전년동기대비 45.2%까지 감소하였으나 4월 들어 감소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중 골프장 신용카드 결제금액[67] 도 3, 4월 감소(전년동기대비, 3월: -33.6% 4월: -20.4%)에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로 전환되었다. 6월 이후에도 주요 골프대회[68]가 재개되면서 업황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결과 숙박업은 1/4분기에 30% 수준에 불과했던 특급호텔의 객실 예약률이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 판매[69] 등에 힘입어 60%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업계는 3/4분기에도 여름휴가철 수요로 투숙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7) 신한, 하나카드의 도내 실외골프장업종 가맹점신용카드 승인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68) 6월 4~7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 롯데 칸타타 여자 오픈, 6월 12~14일에는 KLPGA 투어 S-Oil 챔피언십이 진행되었다. 7월 30일~8월 2일에는 삼다수 마스터스, 9월에는 제주도지사배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69) 제주신라호텔에 따르면 6월 '스위트 허니문 패키지'의 예약 판매량은 3월보다 5배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